

줄리 오츠카의 『신성했던 천황의 시대』에 나타난 일본계 미국인들의 구금의 역사와 트라우마*

박 윤 기
(배재대학교)

Park, Yunki. “Life after Trauma: Japanese-Americans Internment History in Julie Otsuka’s *When the Emperor Was Divine*.” *Studies in English Language & Literature* 44.1 (2018): 45-65. Anti-Japanese hysteria swept the United States and Canada after Pearl Harbor, and much of it was directed toward Japanese Americans. After President Franklin D. Roosevelt signed Executive Order 9066 of February 19, 1942, almost all of the Japanese Americans had to be relocated from their home to one of 10 internment camps. As Japanese Americans, they underwent racism and the hardship of being forced to abandon their freedom and identities during the period of their internment. Julie Otsuka tells a story of a Japanese American family’s ordeal in the internment camp in *When the Emperor Was Divine*. The characters in the novel suffer from oppression on many levels and show symptoms of trauma even if they are not diagnosed pathologically. Otsuka has a strong psychological desire to retell the internment story and give a voice to the silenced internees during the World War II. As this paper shows, rewriting history in today’s context is not to trivialize the event and demean the suffering and sacrifice of those who actually underwent the experience, but to heal the suffering from trauma and secure the safety of the present and the future. (Paichai University)

Key Words: Japanese Americans, anti-Japanese hysteria, internment camps, racism, trauma.

* 이 논문은 2017학년도 배재대학교 교내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수행된 것임.

I. 서론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일본 이민자 2세대인 ‘니세이’(nisei)나 ‘산세이’(sansei)¹를 중심으로 전쟁기간동안 일본계 미국인이나 일본계 캐나다인들이 당했던 구금생활에 대한 경험의 글을 쓰기 시작했다. 그 글은 자서전적인 기록이거나 부모나 조부모 등의 가족으로부터 전해들은 내용에 관한 것이었다. 이 중 대표적인 것으로는 캐나다에서의 캠프생활을 다룬 조이 고가와(Joy Kogawa)의 『오바상』(*Obasan*, 1981)과 미국의 아이다호 주나 유타 주에서의 캠프생활을 다룬 미네 오쿠바(Miné Okuba)의 『시민번호 13660』(*Citizen 13660*, 1946), 모니카 손(Monica Sone)의 『니세이 도터』(*Nesei Daughter*, 1953), 존 오카다(John Okada)의 『노 노 보이』(*No No Boy*, 1957), 요시코 우치다(Yoshiko Uchida)의 『사막으로의 추방: 일본계 미국인 가정의 파탄』(*Desert Exile, The Uprooting of a Japanese American Family*, 1982) 등이 있다. 그 밖의 데이비드 구터슨(David Guterson)의 『삼나무 위에 내리는 눈』(*Snow Falling on Cedars*, 1994), 신시아 카도하타(Cynthia Kadohata)의 『위드플라우어』(*Weedflower*, 2006) 등도 수용소생활과 얽혀 있거나 배경이 되는 작품이다.

제2차 세계대전 동안에 미주지역에서 일본계 미국인들이 경험했을 구금캠프 생활로 인한 충격은 이들 니세이 세대들이 ‘이세이’(issei) 세대들에 비해 훨씬 더 심했다. 물론 니세이 세대 중 일부는 전후 베이비붐 시대에 태어나기도 했지만 대부분은 캠프에서 구금생활을 경험했고 그들의 부모세대와는 달리 민족적인 정체성이 훨씬 더 느슨했기 때문에 차별적인 정책에 더 많이 혼란스러워했다. 그들은 미국이나 캐나다에서 태어나 미국이나 캐나다 시민임에도 일본계라는 이유만으로 잠재적 적군으로 취급되어 캠프생활을 강요당했다. 캠프에서의 구속은 그들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이었으며 이름을 빼앗음으로 해서 정체성을 훼손시키는 일이었으며 인종적 차별에 기인해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캠프에서 풀려난 이후에도 그들은 좌절감과 분노 그리고 상실감으로 인한 트라우마에

¹ ‘니세이’(nisei: 二世, second generation)는 미국이민자 1세대인 ‘이세이’(issei: 一世, first generation)들이 일본 본국에서 태어난데 반해 북미나 남미에서 태어난 일본계 2세를 의미한다. 그리고 ‘산세이’(sansei: 三世, third generation)는 일본계이민자 3세를 뜻한다.

시달려야 했다. 이들의 이야기는 이민자 3세대인 산세이 작가들에게 영감을 주었고 이에 구금캠프기간동안에 있었던 인종차별정책을 비판하는 작품을 쓰도록 자극했다.

이들 가운데 일본계 미국인 3세인 줄리 오츠카(Julie Otsuka)도 있었다. 그녀가 1942~1944년 사이의 일본계 미국인들의 강제적인 억류생활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우연히 발견하게 된 편지로 인한 것이었다. 그녀는 1990년대 중반 친할머니의 아파트를 청소하다가 구금캠프지에서 할아버지가 보냈던 편지묵음을 발견하게 된다. 그런데 그 편지에는 검열의 흔적이 남아 있었다. 이로써 그녀는 제2차 세계대전 시 일본계 미국인들에 대한 구금의 역사와 고통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된다. 그리고 자신이 직접 할아버지가 다 쓰지 못한 공백의 내용을 메꿔보리라 결심한다. 그녀가 정보를 수집하는 과정은 힘들었는데, “그것은 이세이인 할아버지는 구금캠프경험에 대해 말을 아꼈고”(Shea 53), 그 경험을 함께 한 니세이인 어머니조차 캠프생활에 대해서는 이야기하기를 꺼렸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녀는 할아버지와 어머니가 겪었던 구금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알려야겠다는 소명의식이 강했고 마침내 『신성했던 천황의 시대』(*When the Emperor Was Divine*)를 완성하게 된다.

오츠카는 일견 “이 작품을 알레고리로 구성함으로써 한 가족만의 억압과 구금이 아닌 타자와 인종에 관한 전체적인 억압과 구금의 이야기로 확산시킨다”(Wong 36). 실제로 그녀는 한 인터뷰에서 “이 작품을 한 가족의 이야기가 아닌 일본계 미국인 전체나 특정한 역사의 특정한 인종이 당하는 추방과 억압의 이야기로 쓰고 싶었다”(Reed Web.)고 말한 바 있다. 조세 사라마고(José Saramago)는 『눈 먼 자들의 도시』(*Blindness*)에서 “진실을 여과 없이 직접적으로 말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는데, 그것은 끔찍한 행위는 그것자체로 충격적이기 때문에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292)고 말한다. 오츠카 역시 이런 사라마고의 원칙을 충실히 지켰다. 그녀는 작품을 통해 일본계 미국인들에 대한 차별정책과 캠프생활에서의 비참함과 불합리성에 대해 가감 없이 전달한다. 이 작품에서 특이한 점은 한 가족으로 대표되는 가족구성원들이 이름을 상실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캠프에서 구금된 생활을 하는 동안 일본계미국인들이 이름으로 상징되는 정체성을 잃어버렸다는 것을 의미한다. 아울러 스파이로 의심받

는 아버지가 뉴멕시코 주에 따로 몇 년간 수감된 다음 귀향해서의 말이 없는 행동은 외상 후 트라우마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줄리 오츠카의 『신성했던 천황의 시대』에 나타난 한 가정의 이야기를 통해 일본계 미국인들의 구금의 역사와 그로인한 트라우마에 대해 분석할 것이다.

II. 본 론

2.1 루즈벨트 대통령의 ‘행정명령 9066’과 구금캠프

이 작품은 캘리포니아 주 버클리에 살고 있는 일본계 미국인 가족이 프랭클린 D. 루즈벨트(Franklin D. Roosevelt)대통령이 내린 ‘행정명령 9066’(Executive Order 9066)에 따라 캘리포니아에 있는 집을 버려두고 캠프지역으로 이동해서 생활하는 과정이 주요 내용이다. 일본의 진주만공습이 있은 후 10주가 지난 1942년 2월 19일에 내려진 이 명령에 따라 ‘전쟁부’(The Secretary of War)와 군사령관들은 미국인들의 안전을 위한 일로써 일본계 미국인들을 특정지역에서 소개시키는 권한을 행사할 수 있었다(*Internment* 37)². 이에 따라 그들은 미국의 서부해안지대에 살고 있는 모든 일본계 미국인들을 스파이 활동이나 후방을 교란시키는 행동을 할 수 있는 잠재적 적으로 간주해 내륙으로 강제이주를 시켰다. 그 결과 캘리포니아, 오리곤, 워싱턴 주 등 서부해안지대에 살고 있던 11만 명 이상³의 일본계 미국인들이 내륙에 있는 10개의 구류캠프지에 억류되었다. 결과적으로 대통령, 전쟁부, 국방부, 사법부, 대법원과 의회까지도 모두 이 정책

² 위의 인용은 McDougal Littel, a Houghton Mifflin Company(2000)의 A Historical Reader Series 중 *Japanese-American Internment*에 의한 것이며, 이후 본 텍스트의 인용은 *Internment*로 약칭하여 표기할 것임.

³ 게리 Y. 오키히로(Gary Y. Okihiro)의 『콜럼비아안내서: 아시아계 미국인의 역사』(*The Columbia Guide to Asian American History*)나 앨리스 머레이(Alice Murray)의 『제2차세계대전시 일본계 미국인들의 대한 구금정책은 무엇을 의미하는가?』(*What Did the Internment of Japanese Americans during World War II mean?*) 등의 자료에 따르면 캠프에서 구금된 일본계 미국인들은 12만 명이상이고 이들 중 2/3가 미국에서 태어난 니세이들이다.

을 지지했다. 그러자 미국을 벗어나 캐나다, 멕시코, 페루까지도 비슷한 구금정책을 시행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는 일본인들에 대한 인종차별적인 측면에서 비롯된 결과이다. 이들은 인종적인 편견으로 인해 위험성이 높은 잠재적인 적으로 간주되었다(Dower 47).

일본인들은 주로 1850년대부터 미국으로 이민을 오기 시작했는데, 대개는 하와이에서 농부나 노동자로 거주하다가 미국본토로 건너오는 식이었다. 그러다가 1900년대에 이르러 일본인들의 수가 급증하면서 그들에 대한 반감이 일어나기 시작했고 1908년에는 일본인 남성들의 이민을 제한하는 협정이 이루어졌다.⁴ 미국서부 지역으로 이주해온 “일본인 농부와 어부들은 매우 부지런했기 때문에 백인들은 그들과 도저히 경쟁에서 이길 수 없다고 불평했다”(Stanley 6). 이러한 때에 진주만공습은 일본인들에 대한 반감과 적대감을 극에 달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다. 그와 동시에 일본군이 미국서부해안지역에 침입할 것이라는 두려움과 공포가 엄습하자 미국정부는 태평양연안을 군인들이 관할하는 전쟁지역으로 선포하기에 이른다. 그러자 1942년 『타임』(*The Time*)지는 「마당에 들어 온 낯선 자」(“The Stranger Within Our Gates”)라는 1월 10일자 기사를 통해 하와이(Hawaii)에 살고 있는 일본계 미국인들에 대한 위험성을 경고하기에 이르렀다. 그리고 그해 2월 12일엔 유명칼럼니스트인 월터 리프만(Walter Lippmann)은 『뉴욕 헤럴드 트리뷴』(*The New York Herald Tribune*)에 기고한 「오늘과 내일」(“Today and Tomorrow”)이라는 기사를 통해 미국서부해안지대에 거주하고 있는 일본계 미국인들을 다른 지역으로 이주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기에 이른다. 급기야 그의 「해안지대의 제5열」(“The Fifth Column on the Coast”)⁵이라

⁴ 1909년엔 일본계 미국인들에게는 샌프란시스코에 본부를 둔 ‘전미일본인협회’(Japan Association of America)에 등록이 요구되었다. 이 협회는 일본에서 미국으로 이민을 오기 위해 필요한 서류업무를 맡았고 사람들을 관할했다. 1940년대에 이르러 일본계 미국인들의 숫자는 125,000명에 달하게 되는데, 이들 중 80,000명은 미국에서 태어난 이른바 니세이들이었다. 제2차 세계대전의 발발직후부터 1952년 ‘맥카렌-월터이민법’(McCarren-Walter Immigration Act)이 발효되기 전까지 일본인들의 이민은 철저하게 금지되었다(Yamaguchi 16).

⁵ ‘제5열’은 전시에 후방 교란·스파이 행위 등으로 침략군의 진격을 돕는 자를 뜻하는데, 리프만은 이 글(「해안지대의 제5열」)에서 “태평양 연안에서 ‘외국/계인’(alien), 보다 정확히 말하면 ‘제5열’의 문제는 매우 심각하고 매우 엄중하다. 그것이 이렇게 심각하고 엄중한 것은 금방이라도 미국본토가 내외의 적들로 인해 협공의 위협이 있기 때문이다.”(31)라고 주장했다.

는 기사는 미국서부해안지대에 살고 있는 일본계 미국인들을 중부 내륙지역으로 소개시켜 구금하는 결과를 가져왔다(*Internment* 29)⁶.

물론 그들 중 일부는 미군으로 지원해 군복무를 하거나 서부해안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대학에 가기도 했고 특별한 취업을 통해 구금지대로부터 벗어날 수도 있었다.⁷ 하지만 거의 대부분의 일본계 미국인들은 1944년 12월까지 철조망에 갇혀 구금지대를 벗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나 취업을 할 수도 없었다(*Internment* 37). 일본인들은 캠프생활을 하면서도 그리고 구금에서 풀려난 후에도 줄곧 미국인으로서 충성심을 보일 필요성을 인식했다. 1953년 루즈벨트 대통령은 미군의 일원으로 전투에 참가할 일본계 미국인들을 모집했는데, 군인으로 지원한 일본계 미국인들은 미군 제442연대 100대대로 배속되어 전투에 참가했다. 1944년 12월 17일 전쟁부는 구금캠프시설을 폐지했지만 여전히 많은 일본계 미국인들은 미국정부에 충성심을 보일 필요가 있었다(Yamaguchi 18-19). 그렇지만 미군에 자원입대해 전투에 참여했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었다. 미군은 여전히 그들을 온전히 믿지는 않았다. “니세이처럼 미국에서 태어났지만 13-20세 사이에 적어도 3년 이상 일본에서 교육을 받고 일본의 문화를 습득한 키베이(kibei)”(Hayashi 34)들의 경우는 상황이 더 나빴다. “키베이들은 이세이 부모들에 의해 자국의 전통문화를 습득해 오도록 일본에 보내졌다”(Asakawa 10). 하지만 미군들은 키베이들에 대한 의혹의 시선을 더 했다. “연합군 지도자들 중에서 할시(Halsey)제독은 적국이었던 일본인들에 대한 인종 차별적 인사로 악명이 높았던 인물이었다. 그가 한 많은 선언이나 표어 등은 대

⁶ 이밖에도 『뉴욕 타임스』(*The New York Times*), 『샌프란시스코 크로니클』(*The San Francisco Chronicle*), 『로스엔젤레스 타임스』(*The Los Angeles Times*) 등의 언론매체는 일본계미국인들에 대한 편견을 극대화시키는데 부정적인 역할을 주도했다. 그들은 일본계 미국인들은 미국시민에게는 실질적인 위협의 대상이고 인종적, 민족적 갈등을 유발시킬 수 있는 존재들이라는 인식을 심어 놓는데 지대한 역할을 했다(Yamaguchi 19-20). 『샌프란시스코 크로니클』은 기사를 통해 샌프란시스코에 살고 있는 아시아계 미국인들의 순수성을 의심하면서 이들의 빈곤과 이민이 범죄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로스엔젤레스 타임스』는 미국서부해안지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일본계 미국인들을 경계할 것을 강조하면서 이들이 거주하는 지역을 ‘위험지대’(a zone of danger)로 분류했다. 이 신문은 그들 중 일부가 일본을 돕는 스파이나 공작원일 거라고 주장했다(Bishop 70). 결국 이들의 시각은 미국정부가 일본계 미국인들을 잠재적인 위협집단으로 분류하도록 이끌었다.

⁷ 물론 이들은 미국에 대한 충성맹세질문지를 작성해야 했는데, 여기서 통과된 사람들은 비록 소수이지만 캠프를 벗어나 군복무나 취업 및 교육을 받는 것이 가능했다(Inouye 35).

량학살을 옹호하는 것에 가까운 것이었다”(Dower 54). “그가 일본인들을 비하하면서 즐겨 쓴 표현은 “지겨운 황인종”(yellow bastards)이었다”(Dower 55). 캠프에서의 생활은 혹독한 것이었다. 그곳의 수용자들은 가로세로가 각각 20피트와 24피트보다 작은 타르종이 벽의 막사에서 생활을 해야 했다. 건축물은 조악했고 사생활을 지킬 여건도 되지 않았으며 가재도구도 최소한의 것만 겨우 갖춰놓았다. 먹고 씻는 것 또한 공동으로 무리지어 해야 했다. 무엇보다 수용자들은 배반할 마음을 품고 있는 자들이라고 믿는 감시자들에 의한 압박에 시달려야 했다(*Internment* 76). 따라서 “캠프에서의 생활은 다른 미국인들이었으면 당하지 않았을 고통의 낙인이 되었다. 결국 수용자들은 특정한 힘에 굴복해 모욕적인 생활을 감내할 수밖에 없었다”(Internment 76). 전쟁이 끝난 후 ‘일본계미국인 소개피해 청구법’(Japanese American Evacuation Claims Act)에 의거해 손실된 개인재산에 대해 보상해 주는 노력이 있었지만 구금으로 인한 자유의 박탈, 심리적인 충격, 가족의 해체, 육체적인 상처와 심각한 질병을 치유하기에는 터무니없었다(*Internment* 78).

일본계 미국인들의 삶은 캠프에서 집에 돌아온 후에도 여전히 힘겨웠다. 줄리 오츠카의 『신성했던 천황의 시대』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그들은 집을 떠나 있는 동안 거의 전 재산을 잃었고 집에 돌아와서도 사람들의 적대적인 시선과 정치적인 차별성으로 고통을 겪어야 했다. 가족과 떨어져 다른 곳에서 수감생활을 하다 돌아온 아버지는 모든 문제에 민감하고 아이들은 남들의 시선을 의식해 그런 그의 모습을 부끄러워한다. 아이들의 기억 속에서 아버지는 항상 밝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제공해 주는 행복의 전도사였다. 그들은 그가 가족을 예전처럼 행복하게 만들어 줄 것을 기대했었다. 하지만 그는 다른 인물이 되어 돌아왔고 “날이 가면 갈수록 점점 더 방에 틀어박혀 혼자만의 시간만 보내는”(Emperor 136)⁸ 무기력한 모습이다. 구금의 고통스런 기억과 주변의 적대적인 시선은 그에게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힘든 것으로 만들었고 일본계미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의 혼란까지도 가져왔다. 그리고 그의 모습을 지켜보는 가족들은 구금생활로 인한 각자의 트라우마에 더하여 희망의 상실감도 함께 경험하게 된다.

⁸ Julie Otsuka (2002), *When the Emperor Was Divine*. New York: Anchor Books. 이후 본문 인용은 괄호 안에 *Emperor*로 표기하고 페이지를 적시함.

2.2 구금캠프로 인한 정체성의 혼란과 상실

『신성했던 천황의 시대』는 제2차 세계대전동안에 강제로 구금을 당해야했던 일본계미국인 가정의 이야기이고 전체 다섯 개의 장으로 구성되는데, 첫 번째 장은 엄마를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된다. 그녀는 캠프시설로 이동하라는 명령을 받고 열 살의 딸과 일곱 살의 아들을 챙기면서 짐을 싸고 있는 모습이다. 남편은 작품이 시작되기 이미 수개월 전 스파이 혐의로 체포되어 뉴멕시코 주로 이송되어 있는 상태이다. 이는 검열된 흔적이 역력한 그가 보낸 편지의 내용에서 알 수 있다. 두 번째 장은 딸의 시각에서 구금캠프가 마련되어 있는 유타(Utah) 주까지 기차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받게 되는 미국인들의 적대적인 눈초리와 일본계 미국인들의 상황이 주로 묘사된다. 세 번째 장은 아들의 시각에서 토파즈(Topaz)에서의 인종적차별과 구금생활의 모습이 그려진다. 네 번째 장은 전후 구금생활이 끝나고 버클리에 있는 집으로 돌아온 가족들의 이야기이다. 이때 스파이 혐의를 받고 끌려갔던 아버지도 돌아오지만 가족 모두는 이웃들로부터 적대적인 대우를 받는다. 그들이 돌아온 집은 곳곳이 부서져 있는데, 무엇보다 석방되어 나타난 아버지에게는 트라우마가 보인다. 마지막 장에서는 이제까지의 3인칭의 객관적 서술에서 1인칭의 주관적인 서술로 시점의 방식이 바뀐다. 이 장에서는 아버지가 1인칭화자로서의 기능을 하는데, 그는 마음속으로 자기의 스파이 행위를 인정한다. 하지만 그의 회의적이며 냉소적인 고백에서 그가 실제로 스파이 행위를 했는지는 불분명하다.

그런데 3인칭 화자에 의존하는 설명에는 가족 구성원들에 대한 부족한 묘사가 특징적이다. 무엇보다 작품의 주요 등장인물들인 가족 구성원의 이름은 적시되지 않으며 아들, 딸, 어머니, 아버지라는 칭호로만 같음한다. 이들의 이름이 적시되지 않은 것은 무엇보다 구금캠프에 대한 경험이 비단 한 가족구성원들의 경험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 일본계 미국인 대부분인 당해야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전체의 이야기로 확장시키기 위한 작가의 의도로 볼 수 있다. 구금캠프는 11만 명 이상의 일본계 미국인들이 수용되었던 시설로 네 명의 가족구성원들은 이름을 상실함으로써 비슷한 경험을 한 수용자 전체를 대표한다고 볼 수 있다. “이름이 정체성의 부호”(Seeman 129)라고 한다면 이름이 없는 이들 모두

는 정체성을 상실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일본계 미국인들은 본래의 미국인들과는 습관이나 세계관 그리고 가치관 등이 달랐으며 충위는 다를지라도 일본과 미국의 문화가 적절하게 혼합된 분위기에서 생활을 하였을 텐데, 캠프생활을 하면서 일본인의 정체성을 거부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해야만 했다. 이들 중 특히 니세이들은 일본인 제1세대인 이세이들과는 달리 자신들이 일본인가 미국인가에 대한 정체성의 혼란을 훨씬 더 크게 경험한다. 그들 중 상당수는 일본어를 많이 배워본 적도 없고 실상 일본을 방문하거나 일본에서 살아본 적도 없다. 그런데도 그들은 단지 일본계라는 이유만으로 캠프시설에 감금되었고 자유로운 행동의 제약을 받았다(Miller 20). 이들의 캠프생활은 트라우마로 남을 만큼 고통스러운 것이었는데, 당시 캠프수용자들 사이에서는 힘내라라는 의미의 ‘간바레’(ganbare: (がんばれ, Hang in there!))라는 말을 주고받곤 것이 유행하기도 했다.

일본계 미국인 제2세대인 니세이들의 경우는 캠프에서의 생활이 비단 육체적인 트라우마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가정은 물론 학교와 친구들을 한꺼번에 잃어야 했다. 이러한 상황은 정체성의 혼란과 상실의 원인이 되었다. 때문에 니세이들은 어떤 면에서 잇힌 세대, 무엇보다 그 자신들에 의해서 잇힌 세대가 되었다(Anton 5). 상대적으로 나이가 어린 니세이들의 경우는 전쟁이 끝난 후 캠프에서 풀려나 집으로 돌아온 후에는 미국식 이름으로 바뀌어 부르기도 했다. 실제로 『신성했던 천황의 시대』에서도 일본식 이름보다는 미국식 이름을 선호하는 니세이의 모습이 보이기도 한다. 잠재적인 적으로 간주되어 강제되었던 캠프생활은 그들의 가치관을 변모시켜 놓았다. 따라서 니세이들에게 일본식 이름은 차별을 당하지 않기 위해 숨기거나 회피해야 할 대상이 되었다. 그들은 그렇게 하는 것이 미국사회에서 적으로 간주되지 않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기에 “자기들끼리는 미국식 이름으로 부르고 거리에서 엄마가 진짜 이름(일본식 이름)을 부르면 고개를 돌리거나 못들은 척”(Emperor 114)을 한다. 그들은 이제 “아무 곳이고 갈 수 있는 자유가 있고 더 이상 지키는 경비병이나 서치라이트와 철조망 담장도 없지만”(Emperor 113), 여전히 미국인들의 눈치를 봐야하는 입장에 있다.

이렇듯 구금이라는 차별을 받았던 니세이들은 일본식 이름을 숨기려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옷 입는 스타일 등도 최대한 미국인들을 모방하기도 한다. 물론

이러한 현상의 근저에는 캠프생활에 대한 두려움이 자리하고 있다. 반면에 어른들인 이세이들의 경우 이름을 빼앗겼다는 것은 정체성 상실이라는 측면에서 훨씬 더 큰 충격으로 다가온다. “그들에게 이름 대신에 번호를 부여받는 것은 정체성의 상실에 다름아니다”(Inagawa 192). “(캠프생활 당시) 그들에게 우리는 단지 번호에 지나지 않는 존재였고, 천황의 노예들이었다. 우리는 이름을 잃었다. 난 326번 이었다”(Emperor 119). 이를 보면 니세이들은 불필요한 오해를 피하고자 일본식 이름을 회피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이세이들에게 이름의 상실은 곧 바로 정체성을 상실하는 일이자 자기를 부정하는 일이기까지 하다. 이름을 가질 수 있는 권리를 빼앗겼다는 것은 자유를 잃어버린 것과 동일한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개인과 인간으로서의 정체성과 존엄성을 잃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그들은 캠프에 갇혀 감시를 당하게 되는데, 이곳에서 그들은 정체성과 존엄성을 잃게 되는 것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생명까지도 잃게 된다.

4월 어느 포근한 저녁에 철조망담장 가까이에서 한 남자가 총에 맞아 숨졌다. 경비병은 그 남자가 탈출을 시도했다고 말했다. 경비병의 말에 따르면, 네 번이나 소리쳐 불렀지만 그 남자가 경고를 무시했다는 것이었다.

On a warm evening in April a man was shot dead by the barbed-wire fence. The guard who was on duty said the man had been trying to escape. He'd called out to him four times, the guard said, but the man had ignored him. (Emperor 101)

이 사건은 『신성했던 천황의 시대』에서의 주인공 가족이 구금된 캠프에서 일어난 일인데, “그곳에서의 생활은 고되고 힘든 것이었다. 캠프의 책임자들은 구금된 사람들의 일거수일투족을 24시간 감시했다”(Creef 85). 캠프에서는 마음대로 돌아다닐 수 있는 자유조차 없었다. 그런 곳에서 그 남자가 철조망담장 가까이까지 간 행동은 위험한 것이었다. 그 남자의 친구는 그가 그곳에 다가간 이유를 단지 담장밖에 자라난 꽃 때문이었다고 말하지만, 그 말의 진위와 상관없이 그 남자는 경비병의 경고를 듣지 못했을 수 있다. 그는 최소한 자기 이름으로 경고를 듣지는 못했는데, 장례식에서조차 그의 이름은 언급되지 않는다. 이름을 빼

앗겼다는 것은 정체성을 박탈당했다는 것이고 정체성을 상실했다는 것은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존엄성까지도 잃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물론 주인공 가족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다. 작품에서는 캠프에 갇힌 사람들이 정체성과 존엄성의 본질인 이름 없이 살아가는 모습이 그려지는데, 미국인들의 경우에는 점원에서부터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인물들 모두 그리고 심지어는 어린 소녀의 인형에게까지 이름이 부여된다.

이러한 현상은 아이러니컬한 상황으로 그만큼 당시 미국사회에서 아시아계 사람들의 위치라는 것이 보잘 것 없었고 또 그들에 의해 중요시 되지도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신성했던 천황의 시대』에서 토파즈에 구금되었던 아이들에게 뉴멕시코 주에 수감되었던 아버지는 언제나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대상이었다. 하지만 몇 년 후 다시 만나게 된 아버지의 모습은 더 이상 그들이 생각했던 모습이 아니다. “아버지는 그들의 이름을 부르지만, 아이들은 그가 정말 아버지인지 확신이 서지 않는다”(Emperor 132). 수용소에서의 시련은 그의 외모를 변모시켰고 결국은 그의 성격까지도 변하게 만들었다. 그는 수감시설에서의 트라우마로 인해 정체성을 상실했고 더 이상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지 못한다. 따라서 아이들의 “그는 아버지가 아니야, . . . 우리들의 아버지가 아니야”(That’s not him. . . That’s not him)(Emperor 132)라는 부정은 정체성 상실이 가져온 되돌릴 수 없는 전과 후의 변화된 상황에 대한 혼란과 좌절감의 표현이다.

2.3 구금캠프생활과 일본계미국인들의 트라우마

『신성했던 천황의 시대』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다양한 층위의 억압을 당했으며 그로인한 트라우마의 증상을 보인다. “개인과 집단적인 층위에서 두려움과 상실감을 전달하는 것이 트라우마를 다루는 소설이다”(Balaev 150)라고 한다면, 이 소설은 바로 트라우마 소설이라고 할 수 있다. 실제 작품에서 가족의 구성원들은 두려움과 상실감을 경험하며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 있다. 엄마는 이주명령을 받고 짐을 싸는 도중 밀레(Millet)의 그림인 「이삭 줍는 여인들」(“The Gleaners”)을 보면서 “일어나, 위를 봐요”(Look up, look up!)(Emperor 8)라고 소리치는데, 이는 이유 없이 추방당하는 것에 대한 분노의 표현이자 그녀의 불안

한 심리의식을 반영하는 것이다. 그녀의 이 말은 뜻하지 않은 상황으로 내몰린 것에 당혹해 하면서 자기와 같은 처지의 일본계미국인들이 이렇게 된 상황을 피할 수 있도록 무슨 일인가는 해야 하지 않느냐는 항거의 외침이다. 그녀는 이삭을 줍는 여인들이 허리를 숙이고 있는 모습에서 부당한 권력과 지시에 허리를 숙이고 강요에 복종하는 일본계 미국인들의 모습을 본다. 따라서 그녀의 “이 말에는 부당한 지시에 속수무책 당하지만 말고 허리를 펴고 일어나 분연히 맞서야 할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담겨져 있다”(Arrington 16). 하지만 그녀는 정작 그들에게는 이런 말을 하지 못하며 단지 그렇게 말할 수 있다면 하는 마음에서 그친다. 결국 그녀의 이러한 바람은 소망에서만 머물며 현실적인 지시나 독려가 되진 못한다. 그런데 그녀의 이러한 태도는 그 당시 일본계 미국인들의 현실적인 상황이었고 미국사회에 살고 있는 그들로서는 자신이나 가족들의 미래를 고려해 그림속의 여인들처럼 허리를 숙이고 복종하는 자세를 취할 수밖에 없었다. 물론 일부 부당한 지시에 반발하는 움직임이 없지는 않았으나 그러한 투쟁은 극히 일부 사람들에게만 한정된 것이었다.

캠프수용소에서의 그들은 또한 시공간과약능력에 어려움을 겪는 상태이며 죄의식과 수치심으로 자존감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이다. 이들의 구금생활은 일본계 미국인들에 대해 유독 심했던 아시아계라는 인종적 혹은 민족적인 차별성으로 인해 수치감이 더 했고 충격 또한 심했다. 실제로 일본과 연대했던 독일이나 이탈리아 등에서 온 독일계미국인이나 이탈리아계 미국인들에 대한 대대적인 캠프구금정책은 없었다.⁹ 일본계미국인들의 구금정책을 주도했던 존 L. 드위트(John L. DeWitt, 1880 - 1962) 장군은 미국서부지역에서 그들이 내륙으로 이동한 것은 자발적인 것이었으며 안전상의 이유 때문이었다고 말한 바 있다. 그리고 이 정책을 담당했던 많은 담당자들도 그들을 이동시킨 것은 다분히 보호차원이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구금은 강제에 의한 것이었고 불합리적인 요소가 많았음을 실증하는 내용들이 있다.

⁹ 미국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1941-1945), 독일(1941-1945), 그리고 이탈리아(1945-1943)과 동시에 전쟁을 했지만 유독 일본계 미국인들에 대해서만 캠프에 구금시키는 정책을 실시했다. 그런데 이는 전쟁이 발발하기도 전에 이미 일본인 이주민들에 대한 인종차별적인 시각이 지배했음을 말해주는 증거가 된다(Inagawa 161). 즉 “백인들의 시각에서 1세대 일본인인 이세이들은 미국인이라 할 수 없었다”(Tunnell & Chilcoat 3).

그 당시 미국정부는 구금캠프나 정책에 대해 완곡어법을 사용해서 설명한다. 그런데 그들이 사용한 “모임센터,” “재배치캠프,” “소개(위험지역에서 벗어나기)”같은 용어는 쫓겨난 사람들의 반감을 가리고자 한 것이었다. 그들은 집에서 쫓겨나 버룩이 들끓는 헛간이나 먼지가 날리는 시장터 그리고 황량한 곳에도 성급히 형편없이 지은 막사에서 생활해야 했다. “구금”은 적국의 시민들을 감금하는 말이었다.

At the time, the U.S. government used its own euphemisms to identify its wartime camps and actions. Terms such as “assembly centers,” “relocation camps,” and “evacuation” mask the unpleasantness of people removed involuntarily from their homes and forced to live in flea-infested stables, dusty fairgrounds, and hastily and shoddily built barracks in desolate places. *Interment* designates the imprisonment of civilian enemy nationals. (Kashima 8)

라카프라(LaCapra)에 따르면, 트라우마는 자아를 잃어버리고 존재에 괴리를 가져오는 파괴적인 경험으로 그것은 힘겹게 통제되더라도 영원히 치유되지 않는 것(41)이다. 일본계 미국인들이 가지고 있던 “라디오, 카메라, 쌍안경과 권총 등은 모두 다 밀수된 것으로 지정되었고”(Uchida, *Journey to Topaz* 32), 그것들은 경찰서에 가져다 주어야 했다. 일본계미국인들의 다른 주로의 이송과정도 순탄치 않았는데, “캘리포니아와 네바다의 주경지대에서는 총으로 무장한 사람들이 길을 가로막았고, 캔자스의 주지사는 고속도로 순찰대를 동원해 그들이 자기 주로 들어오는 것을 막기도 했다”(Inagawa 181). 미국의 내륙지역에 설치된 10개의 캠프시설은 집이라기보다는 군대의 막사처럼 삭막한 분위기였다. 실제 “군대막사형태로 지어진 건물은 ‘병/막사’(barracks), 식당은 ‘메스홀’(mess hall), 화장실은 ‘야영변소’(latrines)로 불렸다”(Inagawa 198). 하지만 무엇보다 이들이 수용되었던 기온차가 심하고 극심한 모래바람이 부는 황량한 사막의 분위기는 육체적으로 뿐 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지치게 하고 희망을 빼앗고 낙담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오즈카의 『신성했던 천황의 시대』에서는 유타 주의 고립된 사막이라는 공간이 육체적으로 뿐만 아니라 심리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트라우마는 공간적인 상황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Balaev, *Mosaic* 160). 그리고 작품에서 오즈카가 묘사하는 사막이라는 고립된 공간의 황량함은 그곳에

수용되어 있는 일본계 미국인들의 육체적정신적인 상태/황과 관계가 깊다. 사막에서의 겨울의 매서운 추위와 여름의 폭폭 찌는 더위는 수용자들의 고통스런 상태를 나타내주는 비유가 된다. 작품에서 아들인 소년은 잠자기 전에 먼지 낀 탁자위에다가 자기 이름을 쓰는데 밤중에 불어온 거친 모래바람은 그것을 사라지게 한다. “밤새 그가 자고 있는 동안에 더 많은 모래바람이 벽의 틈을 통해 들이닥쳤고, 아침이 되자 그의 이름은 사라지고 없었다”(Emperor 64). 그런데 이는 이름으로 드러나는 그의 정체성이 사라지게 된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부분이다. 반면 엄마의 기억 속에서 어린 시절의 고향인 가고시마(Kagoshima)는 여섯 자매와 송어낚시를 하고 놀았던 행복한 공간이다. 그녀가 묘사하는 “강과 귀뚜라미 그리고 강물에 따라 띄워 보내는 붉은 종이 등”(Emperor 94-95)은 사막의 캠프와는 다른 이상적인 공간의 자연이다. 그곳은 다섯 살 어린 딸에게 대나무 낚싯대를 만들어 주던 아버지의 사랑이 있던 공간으로 사막한가운데 구금되어 있는 지금의 처지와는 완전히 대조가 되는 배경이다.

뉴멕시코 주에 수감되어 있는 아버지의 편지에서도 공간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아버지가 보낸 편지에는 “이곳엔 나무가 하나도 없다”거나 “그저 덩다”(Emperor 60)는 자연에 대한 묘사가 나오는데, 이는 자신의 처지를 최소한으로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이른바 자유와 목소리를 빼앗긴 고통스런 상황에 대한 비유라 할 수 있다. 진주만 공습이 있고 난 후 캠프에 구금되었던 일본계 미국인들의 삶은 고난의 연속이었고 그들의 경험은 오늘날까지도 고통스런 과거로 기억되고 있다. 한 나라에서 가지고 있던 재산을 모두 다 잃고 적이라는 편견과 노골적인 차별을 당하면서도 그곳을 떠나지 못하고 살아야 했던 그들에게 삶은 분명히 힘겨운 도전이었을 것이다. 캠프에서 수년간 구금되어 있었던 일본계 미국인 1세대나 2세대인 이세이나 니세이들은 자신들의 자녀나 손주들에게는 그때의 경험을 좀처럼 이야기 하지 않는다. 이는 줄리 오츠카의 『신성했던 천황의 시대』에서 스파이 혐의로 구금되어 있다가 돌아온 아버지가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 하지 않는 경우에서도 드러난다. 그것은 미국인으로 살고 있으면서도 일본계라는 이유로 전쟁의 주범이나 주범을 돕는 스파이로 몰려 아무런 증거도 없이 강제로 수용소 생활을 강요당했던 자신들의 처지에 수치심을 느꼈던 이유가 가장 클 것이다.

PTSD, 이른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osttraumatic stress disorder)는 트라우마를 일으키는 사건에 노출된 후에 나타나게 되며, 증상으로는 과거를 떠올리며 정신적으로는 멍한 상태이고 과민반응을 보이기도 한다. 살아가면서 트라우마가 되는 사건에 노출되는 빈도는 50%~80%에 이를 만큼 빈번하다. 물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러한 사건에 노출되기도 PTSD로까지는 진행되지 않는다(Kawakami etc. 157). 하지만 이렇게 심각한 정신적인 질병의 단계는 아니더라도 트라우마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는 사람들은 상당히 많다. 가와카미 연구진들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PTSD까지 이르게 하는 트라우마의 원인 중 높은 것으로는 누군가로부터 (성적인) 폭력을 당하거나 질병이 있는 아이의 경우를 들 수 있는데, 그 밖의 원인으로는 개인적으로 겪었던 경험에 의한 것(Kawakami etc. 160)이 가장 높은 순위를 차지했다. 이렇게 볼 때, 『신성했던 천황의 시대』에서 다루고 있는 일본계 미국인들이 겪어야 했던 캠프에서의 구금생활은 개인에게는 정신적·육체적으로 수치감과 두려움을 안겨줘 충분히 상처가 될 만한 개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신성했던 천황의 시대』는 마지막 장인 「고백」(“Confession”)에서 정점에 다다르게 된다. 실제로 줄리 오츠카 소설의 힘은 이 마지막 「고백」장에서 존재하지만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묘사되는 아버지의 아이러니컬한 인정에서 클라이맥스가 된다. 이 장에서 그는 자기를 억류했던 자들에게 자기가 범죄를 저질렀고 스파이 행위를 했으며 반미행위도 했음을 인정한다. 하지만 그의 고백은 아이러니컬한 것이다. 스파이행위나 반미활동을 했다는 아버지의 고백은 기실 방어적인 인정일 확률이 높고 전혀 근거도 제시되지 않는다. 소설의 마지막 부분에서 13세 어린 딸에게 비춰진 몇 년 동안 구금돼 있던 아버지에 일어난 변화는 다음과 같다.

아버지는 지난 몇 년간 어떤 일이 일어났었는지에 관해서는 한 마디도 하지 않았다. 정말 한 마디도 없었다. 그는 정치나 잡혀갔던 일이나 왜 이가 다 빠져버렸는지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 . . 그는 왜 기소가 되었는지에 대해서도 말하지 않았다. 방해공작의 죄명이었을까? 적에게 기밀을 팔아넘긴 죄명이었을까? 정부전복을 기도했는가? 아버지는 정말 죄가 없을까? (그곳에 정말 잡혀 있거나 했던 것일까?) 우리는 알 수 없었다. 굳이 알고자 하지도 않았다. 요구하지도 않았다

다. 우리가 하고자 했던 것은, 어쨌든 다시 예전과 같은 세상에 돌아왔기 때문에, 모든 것을 잊고자 한 것이었다.

He never said a word to us about the years he'd been away. Not one word. he never talked about politics, or his arrest, or how he had lost all his teeth. . . . He never told us what it was, exactly, he'd been accused of. Sabotage? Selling secrets to the enemy? Conspiring to overthrow the government? was he guilty as charged? Was he innocent? (was he even there at all?) We didn't know. We didn't want to know. we never asked. All we wanted to do, now that we were back in the world, was forget. (*Emperor* 133)

도파즈에서 구금생활을 하고 있는 가족들에게 뉴멕시코 주에 잡혀 있는 아버지의 비중은 상당히 큰 것이었다. 비록 작품이 마지막 장에 이르기 전까지 아버지의 모습은 보이지 않지만 그가 가족들에게 상징하는 바는 매우 크다. 가족들은 집을 정리하고 캠프지로 떠날 준비를 하고 유타 주까지 기차를 타고 가는 도중에도 여러 가지 어려움에 부딪치며 캠프지에 도착해서도 갖가지 고충을 겪게 된다. 그런데 이러한 과정에서 남아 있는 가족들에게 보이지 않는 아버지의 존재는 항상 크다. 아버지의 부재는 그들이 샌프란시스코에서 그와 함께 살던 행복했던 때를 떠올리게 하며 구금에서 풀려난 후 새로운 삶을 설계하도록 하는 동기가 된다. 비록 아버지는 가까이에 존재하지 않지만 언젠가 그와 다시 만나게 되리라는 희망은 그들이 구금시설에서 오랜 시련을 견디게 하는 힘이 된다. 그들은 각자의 방법으로 아버지를 기억하려 한다.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흐려질 때조차도 아내와 아들 그리고 딸 모두는 그에 대한 생각은 멈추지 않는다.

그런데 전쟁이 끝나고 아버지가 돌아온 후 딸의 시각에서 보이는 그는 전쟁 이전과는 완전히 변화된 모습이다. 아버지는 스파이 혐의를 받고 끌려간 뉴멕시코 주에서의 일에 대해서는 완전히 함구한다. 사빈(Savin)은 캠프에 구금되었던 일본인들이 그곳에서 풀려난 후에도 침묵하는 것을 일본인들의 문화적인 습성으로 이해한다. 그에 따르면, “구금당했던 일본계 미국인들은 자신들의 잘못이 없다하더라도 끌려가 수감되었던 사실 그 자체를 수치로 여긴다”(229)는 것이다. 어찌

면 정부를 비난하는 모습이 캠프를 만들어 자신들을 수감했던 정부정책의 정당성을 부여하는 것을 우려했을 수도 있다. 하지만 『신성했던 천황의 시대』에서의 아버지는 모든 것을 잊고자 하는 열망밖에는 없는 것처럼 보인다. “그의 이러한 반응은 전쟁이 끝난 후 원래 살던 세계로 돌아왔던 일본계 미국인들이 직면해야 했던 전후 어려움”(Gibbons 130)과 인간성에 관한 심각한 트라우마를 반영해 준다. 침묵을 지키는 일과 구금의 기억에서 벗어나는 일이 전후 일상적인 일과로 돌아오기 필요했던 것이다.

더욱이 이러한 아버지의 반응은 과거 구금기간에 경험했던 정신적 육체적 폭력으로 인해 심각한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거나 그러한 트라우마를 여전히 극복하지 못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세이나 니세이들은 캠프에서 구금되면서 겪었던 고통과 트라우마를 자식들에게는 이야기 하지 않는데, 그것은 그 때의 상처를 끄집어내어 이야기하는 것은 상처받기 쉬운 아이들에게 해를 끼치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Miller 20). 또한 “이들은 자신들의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두려워했는데, 그것은 미국정부가 캠프생활 내내 자신들의 행동을 감시하거나 기록하고 있다는 느낌 때문이었다”(Miller 21). 그런데 이들의 이러한 두려움은 캠프시설에서 풀려난 후에도 계속되었다. 이렇듯 자신들이 여전히 감시당하고 있다는 두려움은 자유롭게 말을 하거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을 위축시켰다.

III. 결론

1941년 12월 7일 일본군에 의한 하와이 공습에서 시작된 미국 서부해안가에 살던 일본계미국인들의 내륙으로의 구금정책은 미국역사에는 인종차별에 대한 오점이자 당사자들에게는 커다란 트라우마로 남게 되는 아픈 경험이었다. 캠프에 직접 구금되지 않았던 많은 산세이들에게는 일본계 미국인들이 구금되었던 캠프생활에 대해서 듣거나 배운 기억도 없을 것이고 안다고 해도 정보가 많지는 않을 것이다. 작가인 오즈카만 하더라도 우연히 발견한 할아버지의 편지를 읽지 않았더라면 일본계미국인들이 구금되었던 사실을 몰랐을 터이고 그녀가 작품의

마지막 「정보출처」(“A Note on Source”)를 통해 밝히고 있듯이 요시코 우치다의 『사막의 추방인들: 일본계 미국인 가정의 파탄』 등의 전기 없었더라면 『신성했던 천황의 시대』도 나오지 않았을 것이다. 일본인 3세인 산세이들은 캠프생활을 한 적이 없고 있다 하더라도 아주 어릴 때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기억도 없다. 따라서 그들의 구금캠프에 대한 비판은 직접 경험했던 일본인 1세대인 이세이나 2세대인 니세이들의 그것과는 다를 수 있다. 물론 캠프생활의 당사자들 역시 구금에 대한 기억은 다를 수 있다. “그와 같은 경험이 기억되는 방식은 항구적으로 안정된 것도 아니고 일관적인 것도 아닌데, 그것은 지나간 기억은 현재 사회정치적인 조건에 따라 종종 재조립되거나 재해석되기 때문이다”(Takeuchi 243).

일본계 미국인 시민연맹(Japanese American Citizens League)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반증오프로그램’(Anti-Hate Program)의 내용에서는 “편견과 편협함이 개인이나 그룹의 안전과 평등성이 보장되는 사회를 이루는데 장애가 되는 요인”(JACL Web)임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JACL에서는 아시아계 미국인들에 대한 부정적인 관념과 잘못된 인식을 불식시키는 일을 최우선 과제로 두고 있다. JACL은 1929년에 일본계 미국인의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설립된 단체로서 일본인이민자들이 미국사회에 정착하는데 도움을 주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2017년 10월 현재까지도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다. 그리고 미국사회에서 살고 있는 일본계 미국인과 아시아계 미국인들의 인종 간 다 민족 간 결혼문제에 관한 상당 등 권리확보에 힘을 쏟고 있다고 자평한다. 그렇지만 JACL에서 여전히 강조하는 바는 미국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본계미국인을 중심으로 한 아시아계 사람들의 인종/민족적 차별을 감시하고 그들의 권리를 옹호하는 일이다. 그런데 이 단체가 이 문제를 최우선 과제로 다루고 있는 것에는 1942년 진주만 공습 후 강요당했던 일본계 미국인들의 구금에 대한 역사가 배경이 되고 있다. 그만큼 일본계 미국인들에게는 캠프에 구금되어 지내야 했던 기간이 치유하기 힘든 트라우마로 지속되었다.

오늘날 미국에는 산세이뿐만 아니라 1965년도 이후로 들어오기 시작한 일본인 신1세대인 ‘신이세이’(Shin-Issei)가 있고 일본계 미국인으로 4세대인 ‘온세이’(Yonsei), 5세대인 ‘고세이’(Gosei), 6세대인 ‘로쿠세이’(Rokusei) 등이 어

올려 살아가고 있다. 일본계 미국인들의 구금캠프생활을 바라보는 이들의 감정과 경험 또한 다를 것이다. 하지만 그렇더라도 제2차 세계대전동안에 미국 서부 해안지대에 살던 일본계미국인들의 강제적인 이주와 구금에 대한 역사는 오점이자 고통스런 기억이고 미래에는 두 번 다시 반복되지 않아야 할 사건이다. 물론 구금을 당하게 된 동기가 진주만 공습이라는 하와이에 대한 폭격이 직접적이지만 거기엔 아시아계 민족이라는 인종적 차별이 내재되어 있는 것이라면 더더욱 그렇다. 따라서 구금에 대한 기억은 더 이상 이세이나 니세이들처럼 직접적인 당사자의 경험으로써만 한정해서는 안 된다. 또한 그것은 일본계미국인이나 일본인들의 역사로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아시아계 일본인 전체의 상황으로 확대시켜 볼 수 있는 문제라는 사실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오늘의 상황에서 역사를 다시 쓰는 일은 지나간 사건을 사소한 것으로 치부하거나 당사자들의 고통이나 희생을 폄하하려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오늘날의 관점에서 과거의 아픔을 치유하고 현재와 미래의 안전을 도모하려 함이다.

Works Cited

- Anti-Hate Program On the Web*. Japanese American Citizen League. 16 Oct. 2017. <<http://jacl.org/social-justice/anti-hate/>>
- Anton, Alina-Elena. *Mapping Cultural Identity: Japanese North-American Authors between Memory and Myth*. Diss. (Thesis Abstract). Alexandru Cuza U. of Iasi, 2014. Print.
- Arrington, Leonard J. *Price of Prejudice: the Japanese-American Relocation Center in Utah during World War II*. Utah: Topaz Museum, 1997. Print.
- Asakawa, G. *Being Japanese American: A JA Sourcebook for Nikkei, Hapa, & Their Friends*. Berkeley: Stone Bridge P, 2004. Print.
- Balaev, Michelle. "Trends in Literary Trauma Theory." *Mosaic* 41.2 (2008): 149-66. Print.
- Balaev, Michelle. *The Nature of Trauma in American Novels*. Evanston: Northwestern UP, 2012. Print.
- Bishop, R. "To Protect and Serve: The 'Guard Dog' Function of Journalism in Coverage of the Japanese-American Internment." *Journalism and Communication Monographs* 2 (2000): 65-95. Print.
- Creef, Elena Tajima. *Imaging Japanese America The Visual Construction of Citizenship*.

- Nation, and the Body*. New York: New York UP, 2004. Print.
- Dower, John. "Apes and Others." *A Historical Reader: Japanese-American Internment*. Evanston: McDougal Litell, 1942. 46-55. Print.
- Gibbons T. Jeffrey. *Asian American War Stories: Trauma and Healing in Contemporary Asian American Literature*. Diss. U of North Carolina, 2016. Print.
- Guterson, David. *Snow Falling on Cedars*. London: Bloomsbury Publishing PLC, 2009.
- Hayashi, B. M. "Governors and Their Advisers, 1918-1942; The Governed: Japanese Americans and Politics, 1880-1942." *Democratizing the Enemy: The Japanese American Internment*. Princeton: Princeton UP, 2004. 16-75. Print.
- Inagawa, Machiko. *Japanese American Experiences in Internment Camps during World War II as Represented by Children's and Adolescent Literature*. Diss. U of Arizona U, 2007. Print.
- Inouye, K. "Viewing World War II Internment through Emiko Omori's "Rabbit in the Moon." *Journal of American Ethnic History* 30.4 (2011): 31-37. Print.
- Kashima, T. *Judgement without Trial: Japanese American Imprisonment during World War II*. Seattle: U of Washington P, 2003. Print.
- Kawakami, Norito etc. "Trauma and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in Japan: Results from the World Mental Health Japan Survey." *Journal of Psychiatric Research* 53 (2014): 157-165. Print.
- LaCapra, D. *Writing History, Writing Trauma*. Baltimore, MD: The John Hopkins UP, 2001.
- Lippmann, Walter. "The Fifth Column on the Coast." *A Historical Reader: Japanese-American Internment*. Evanston: McDougal Litell, 1942. 31-35. Print.
- Miller, Carrie L. *Japanese American Cultural Identity: The Role of WWII, Internment, and The 3/11 Disaster in Japan*. Diss. U of Denver, 2014. Print.
- Murray, Alice Yang. *What did the Internment of Japanese Americans during World War II Mean?* Boston: Bedford/MacMillan, 2005.
- Okiihiro, Gary Y. *The Columbia Guide to Asian American History*. New York: Columbia UP, 2001. Print.
- Otsuka, Julie. *When the Emperor Was Divine*. New York: Anchor Books, 2002. Print.
- Reed, Josephine. "An Interview with Julie Otsuka." *Discussion Guide*, Hope College. Web. 6 Oct 2017.
 <<https://hope.edu/.../Emperor%20Discussion%20Guide%202017%20>>
- Saramago, José. *Blindness*. Trans. Giovanni Pontiero. New York: Harcourt, 1997. Print.
- Savin, M. *The Moon Bridge*. New York: Scholastic, 1992. Print.
- Seeman, M V. "Name and Identity." *Canadian Journal of Psychiatry* 25.2 (1980): 129-37. Print.
- Shea, Renee H. "The Urgency of Knowing." Rev. of *Buddha in the Attic*, by Julie Otsuka.

- Poets & Writers* Sept/Oct 2011: 50-56. Academic Search Elite. Web. 6 October 2017.
- Stanley, J. *I am an American: A True Story of Japanese Internment*. New York: Crown, 1994. Print.
- Tunnell, M. O. and Chilcoat, G. W. *The Children of Topaz: The Story of a Japanese American Internment Camp Based on a Classroom Diary*. New York: Holiday House, 1996. Print.
- Uchida, Y. *Journey to Topaz*. Illustrated by Donald Carrick. Berkley: Creative Arts Book Company, 1985. Print.
- Wong, Gary Sakaki. *Sansei Internment Camp Literature and Guilt from Secondary Victimization*. Diss. San José State U, 2010. Print.
- Yamaguchi, Precious Vida. *World War II Internment Camp Survivors: The Stories and Life Experiences of Japanese American Women*. Diss. Bowling Green State U, 2010. Print.

박윤기

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배재로 155-40(도마동) 배재대학교 영어영문학과

이메일: ykpark@pcu.ac.kr

논문접수일: 2017. 12. 27 / 심사완료일: 2018. 01. 30. / 게재확정일: 2018. 02. 08.